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개화기 출판*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 논문은 개화기 한국 사회에 근대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출판매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1905년경부터 애국계몽운동이라는 흐름 속에서 출판매체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새로운 연합자와 인쇄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출판매체들 중 계몽서적과 역사서적, 전기류 등이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몽서적들은 타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는데 기여하였으며 당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대 국가의 건설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근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서구의 근대 문물을 도입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관심도 새로이 일어 고전을 재출간하는 작업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서적들은 민족 공통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재구성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고대의 단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 전통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공간적으로는 만주를 포괄하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전기류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영웅들이 나타나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음을 웅변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인쇄매체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케 함으로써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민족주의, 출판, 언론사, 개화기, 모더니티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1-B01142).

** bchae@pusan.ac.kr

1. 머리말

이 논문은 개항 이후 한국 사회에 민족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근대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출판 매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출판문화가 일찌감치 발달되었으나 그 사회적 기반이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1883년 『한성순보』의 창간과 함께 서구의 근대적 연필자와 인쇄기가 일본을 통해 들어오면서 근대적 인쇄문화가 성립되었다(김두중, 1980, 236~237쪽). 이를 계기로 새로운 활자와 인쇄술을 이용하여 출판사와 서점이 생겨나고 책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출판문화가 태동하게 되었다. 특히 1905년부터는 일제의 침략 앞에 국권을 상실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 계몽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여 후일을 도모하지는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당시 의병운동과 함께 민족운동의 양대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조항래, 1993)되고 있는데, 이 애국계몽운동의 구체적 방법의 일환으로, 다시 말해 민중 계몽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출판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또한 봉건지배 체제의 몰락과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사상적 대응 체계로서 근대적 민족주의가 싹트고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적 개혁을 이루자는 개화사상이 형성되면서 초기에는 제국주의 열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서, 나아가서 우리의 근대적 개혁을 도외줄 우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나 을사늑약, 고종의 강제 퇴위 등의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 근대적 민족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신문과 출판은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서구의 사상과 문물을 소개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앤더슨(Anderson, 1991/2002)은 이 근대 민족주의를 만들어낸 ‘상상의 공동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이 성립하는 데 바로 인쇄매체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인쇄매

체가 언어공동체를 명확히 설정하여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19세기 말 피식민지역의 민족주의 형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를 제공하였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앤더슨의 입장을 한국 사회에 적용시켜 근대 민족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출판 매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앙드레 슈미드(Andre Schmid, 2002/2007, pp. 52~53)는 개화기 애국계몽운동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집단에 의해 생산된 지식들이 근대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배포를 담당했던 주요 매체는 바로 신문과 출판 등 인쇄매체였다.

이 중 개화기 한국의 신문 매체가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채백(2005a)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다. 채백의 연구에서는 개항 직후 타자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여 근대화된 서구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동일시의 욕망이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청일전쟁 이후 열강들의 이권침탈이 본격화되면서 반제적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고종의 강제 양위로 황제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한국 언론에는 근대 민족주의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또 다른 주요 매체, 즉 출판매체를 대상으로 개화기 한국 사회에 근대 민족주의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은 새로운 연필자와 인쇄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개화기의 출판매체, 그중에서도 서적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화기의 출판은 『한성순보』의 간행 직후부터 이루어 지기는 했지만 활기를 띠었던 1905년 이후의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883년 『한성순보』의 창간과 함께 근대적 인쇄술이 도입되어 책의 간행도 이루어졌으며 특히 갑오개혁 이후로는 학부에 의해 여러 종류의 교과서들이 출판되었으나, 이 시기의 서적들 특히 역사서적들은 전통적인 조선왕조의 역사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Andre Schmid, 2002/2007, pp. 413~414). 따라서 본 논문의 논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본 논문의 분석은 1905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화기 출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역시 교과서였다. 학부 편집국이 중심이 되어 교과용 도서를 출판하였으나 당시 일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교과서 출판 역시 일본의 영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그리하여 1906년경에는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당시 신문과 계몽 단체들의 반대에 의해 관철되지는 못하고 부분 시행되었으며 1908년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는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이나 ‘과격한 문자를 써서 자주독립을 설(說)하는 내용을 금한다는 등의 항목이 포함될 정도였다(강윤호, 1985, 57~65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과서 출판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는 민간에 의해서 제작, 배포된 서적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에 의한 출판물 중 근대 민족주의 형성과 연관 있다고 볼 수 있는 계몽 서적과 역사 서적, 그리고 전기류를 대상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출판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여 근대 민족주의 형성과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논해 보려고 한다.

2. 개화기 출판의 실태

1) 출판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는 일찍부터 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해 온 전통이 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인쇄문화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찌감치 발달해 왔다. 책을 중시하는 전통은 개항 이후 들어온 새로운 인쇄술과 납 활자를 이용한 신서적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 10월 12일자 ‘서적이 위개발민지지도남(爲開發民智之指南)’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당시의 정세를

“타인의 노예와 수축(獸畜)이 되미 즉목하필지시세(即目下必至之勢)”, 즉 남의 노예 신세나 가축으로 전락할 것이 필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적을 통한 계몽이 긴급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然則大韓人民으로 하야곰 愛國熱心을 養成코자 하면 民智를 開闢함에 在하고 民智를 開闢코져 홀진디 書籍이 緊要한지라……各其社會中에서 一般會員을 愛國熱心으로 一致養成코져 하면 先히 東西洋 各國近世史와 有名한 人物의 事蹟과 各種 學業의 文字를 或 國漢文을 交用하야 譯述하며 或 純國文으로 以하야 或 小說로 以하며 或 歌謠로 以하야 曉解하기를 便易케 하며 感觸하기를 深切케 하야…….

민지를 개발하고 애국심을 양성하려면 서적이 긴급하다는 지적이다. 역사와 전기, 각종 계몽서적 등 다양한 양서를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발간하여 백성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서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비단 『대한매일신보』뿐만이 아니었다. 『황성신문』도 1908년 2월 22일자 ‘인지(人知) 정도가 시대변천에 인(因)함’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당시 한국의 인지 정도를 문명사회의 10분의 1, 2 정도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설립과 신문 발행, 신서적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출판이 곧 국력’이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8일자 ‘구서(舊書)간행론’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英國의 富가 誰가 造하얏나뇨 金錢乎아 鑛產乎아 曰否라 非也라 書籍이 造하얏나니라 德國의 強을 誰가 造하얏나뇨 〇槍乎아 大砲乎아 曰否라 非也라 書籍이 造하얏나니라 嗚呼라 金錢鑛產槍砲等이 富強의 具가 아님은 아니는 此富強의 具를 造하얏는는 又書籍이 아닌가 故로 書籍을 刊行廣布하는 것이 國民의 第壹大功臣이 나라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국가가 부강하게 된 힘의 원천은 금전이나 광산, 총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적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적을 널리 퍼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맞아 구래의 서적문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인식도 등장하였다. 『황성신문』 1899년 1월 14일자 의 논설은 전통의 서적 문화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我國의 書冊이 汗牛充棟하야 聖經賢傳以外에도 天下의 遺文古史가 畢集치 아닌 者ㅣ無호되 唯獨時文이 不足하야 官人과 百姓이 世界의 形便과 交際의 本旨를 明達치 못호는故로 外人을 對함이 井底蛙를 免치 못하야 항상 有志者의 深歎호는 必 되더니

우리의 전통 서적 문화가 경서나 역사서 등은 풍족하지만 시사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여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과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서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서적 중에서도 특히 통속 소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만세보』 1906년 7월 28일자 잡보란에 실린 ‘언문세책금독(諺文貰冊禁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무사 박승조(朴承祖)의 말을 기사화 하면서 우리 국민의 지식이 부족함은 교육이 없는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말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있고 있다.

吾不生에 可惜하고 可憐호는 春闈花燭과 閭巷市井과 屏門長席에서 所謂諺文 貰冊洪吉童傳春香傳蘇大成傳等冊을 高聲大讀호면서 嬉嬉阿呵하야 無情호 歲月을 空然히 지너니 該 諺文貰冊等이 人民生活호는 程途에 무엇이 有益호리오 我가 決斷코 此等習慣을 嚴禁호깃다더라

시중에서 대본의 형태로 유통되면서 큰 소리로 낭독까지 되고 있는 흥길동전, 춘향전, 소대성전 등의 전래 소설에 대해 ‘인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면서 이런 관습을 기필코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당시의 개화세력에게는 꽤 널리 존재했던 것 같다. 당시의 대표적 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도 1906년 풍속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풍수지리와 점, 무속 등과 함께 이언(乩謫)¹⁾소설 등의 “폐습을 엄금하자”는 건의문을 올린 바 있다. 이 건의문에서 자강회는 풍속을 문란케 하는 소설을 엄금함으로써 문명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 규제해 달라고 주장하였다(『만세보』, 1906. 10. 1.~12. 잡보 ‘자강건의’).

우리 것뿐만 아니라 외국 서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타자에 대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는 외서를 번역하는 작업이 급선무라 인식하였다. 『황성신문』 1907년 6월 28일자 논설은 ‘외적역출(外籍譯出)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외국의 정치나 법률 등을 알기 위해서는, 즉 지피지기(知彼知己)를 위해서는 서적의 번역, 출판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今日開民知之第一着은 莫先於譯書라 上則教育主權者가 設譯書之局호며 養譯書之人호며 獎譯書之業호고 下則社會有志者가 創譯書之所호며 育譯書之才호며 務譯書之事하야 精譯而無粗譯호며 急譯而無緩譯호야 躋我民於文明케 호을 切切是祝也호노라

민중 계몽에 가장 시급한 것이 번역 작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 교육은 번역을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여 요원을 양성하고 사회는 번역 기관을 만들어 번역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그 역할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작업이 지체 없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 서적의 번역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도 나타났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12일과 13일에 걸쳐 혈루생(血淚生)이라는 필명의 사람이 투고한 ‘논일어교과서’라는 제

1) 향간에 떠도는 속된 말을 의미함.

목의 독자투고가 게재되었다. 이 투고는 학부에서 일본인이 일어로 저술한 소학교용 교과서를 발행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투고한 글이다.

大抵國民教育은 其國之國性을 興起發達함에 在는거시라 然則國性은 一國民의 특수한 品性氣風을 謂함이라 一國語는 其國民之思想을 交通하는 鐵道라 同一한 民族이 言語가 相同한 故로 心志가 相徹하여 彼喜者를 我亦喜之하며 彼哀者를 我亦哀之하여 一國民의教育을 擴張하여 以前麻痺하던 思想을 一掃하고 千杖築동之中에서 決出하는 活木같은 氣象을 養成하였다가 日後之好機를 當하여 一氣一心으로 既失之國權을 回復할지어다 如此遠大한 目的을 達하고자하면 國民教育外에는 決無他策인데 今日 政府當局의 教育政策이 其如何哉아 國家之存亡에 關한 教科書問題를 度外視之하고 既爲議決하여 不遠에 實施한다하니 爲其國民하여 默視而看過가 可乎아…(후략)

‘국성’ 즉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어가 필요하고 중요함을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다. 국어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교육하여 후일 기회가 오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의 교과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화기 한국 사회는 서적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의 출판에 대한 인식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출판을 강력한 계몽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에 민족적 자각이 싹트면서 애국심 양성에도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출판이 국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이다. 이는 애국계몽운동에 사상적 밑바탕이 되었다. 세 번째는 서구적·근대적 지향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 출판이나 통속적 출판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면서 서구의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출판사의 실태

근대적 출판이 처음 시도된 것은 잘 알려진 대로 박문국에서 1883년 『한성 순보』를 창간, 발행한 것이었다. 박문국에서는 신문을 발행한 외에 『만국정표(萬國政表)』(1886), 『천금록』(1887) 등의 단행본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강명관, 1999, 50쪽). 신문이 아닌 잡지와 책 등 출판 매체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사로는 1884년 설립된 광인사(廣印社)가 최초이다. 박문국의 활자와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던 광인사는 합자회사의 형태로 상업적 목적으로 출발하여 1880년대 말까지 존재하면서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다(김봉희, 1999, 36~37쪽). 광인사가 발행했던 출판물들로는 『충효경집(忠孝經集)』(1884), 『농정촬요(農政撮要)』(1886), 『일본내각열전(日本內閣列傳)』(1886) 등이 있다(강명관, 1999, 50쪽).

이때부터 1904년까지의 기간에 총 7개의 출판사가 설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1892년 성서활판소가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1899년의 탑인사, 대동성문사(1900년), 광문사(1901년), 보인사(1903년), 박문사(1903년), 광학사(1905년), 흥학사(연도 미상) 등이다(강명관, 1999, 51쪽; 한국고전적목록종합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2007. 9. 14. 이하 ‘고전목록’이라 줄임).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출판 실적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으며 출판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이후부터의 일이다. 이 기간 중 새로이 설립되어 책을 발행한 출판사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강명관, 1999, 52쪽과 고전목록을 종합한 것임).²⁾

2)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발행 실적물이 현존하거나 당시의 신문 기사나 광고란 등에 소개된 바가 있는 출판사만을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누락된 것이 있을 것이다. 고전목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간행물의 이름이나 저자, 소재지나 연호 사용 등을 보고 청이나 일본의 출판사라고 추정되는 것은 제외하였음.

<표 1> 연도별 출판사의 설립 실태

설립연도	출판사명	개수
1905	박문서관(博文書林), 광학서포(廣學書舖), 대동서시(大東書市)	3
1906	광광학사(廣廣學社), 보문관(普文館), 박문서원, 중앙서관, 화동(華東)서관, 김상만서포(金相萬書舖), 광학회, 보성관, 연상상점(淵上商店), 고향서실(古香書室), 화동활판소	11
1907	회동(匯東)서관, 대동광문회, 광화(廣華)서관, 고금서해관(古今書海館), 광지서국(廣智書局), 박문서관, 박학서관, 한양서관, 일신사(日新社), 보문사, 휘문관(徽文館), 동양서원, 보서관(普書館), 황성서적조합, 보성사, 광동(光東)서관, 한국진서(珍書)간행회	17
1908	신구(新舊)서관, 대한서관, 영림(英林)서관, 장문관(獎文館), 국문관, 야소교서회, 동문사(同文社), 유일서관, 문화당(文章堂), 신문관(新文館), 광동(光東)서관, 해동서관, 문명서관, 광덕서관, 의진사(義進社), 대동(大同)서관, 옥호(玉虎)서관, 융문관(隆文館), 우문관(右文館), 고문관(古文館), 박문서관, 회동(匯東)서관, 찬집청(撰集廳), 홍문관(弘文館)	24
1909	안현(安峴)서관, 홍문사, 광지(廣智)서포, 광한(廣韓)서관, 경향명유명(名有名)書舖, 공애당(共愛堂), 동문관(同文館)	7
1910	동문(同文)서관, 광문당(廣文堂)서포, 수문(修文)서관, 조선고서간행회, 조선광문회(光文會)	5
계		67

현존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것만도 총 67개사에 이른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방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판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강명관, 1999, 53~54쪽). 평양에는 동화(東華)복음서관, 야소교책사(冊肆), 협성서관, 야소교서원, 광명(光名)서관, 태극서관, 대동(大同)서관 등이 있었으며 대구에 광문사³⁾와 김기홍(金璣鴻)서포, 석실(石室)서관 그리고 안악에 면학서포(신용하, 2004, 160~161쪽) 등의 출판사가 존재하였다.

3) 대구의 광문사는 김광제, 서상돈 등에 의해 설립된 출판사로, 바로 이들에 의해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발의됨으로써 운동의 발상지가 되었다(조항래, 2007, 38쪽).

이 출판사들 외에도 교육단체나 개인이 책을 발행한 사례도 많았다. 교육월보사, 국민교육회, 양정의숙, 제중원, 휘문의숙, 흥사단 등의 단체뿐만 아니라 현공림(玄公廉), 김우식(金宇植), 정인호(鄭寅琥), 박영조(朴永祖), 정희진(鄭喜鎭), 김상천(金相天), 노익형, 조종호(趙鍾灝) 등의 개인도 여러 종류의 서적을 발행하였다(고전목록 참조). 이 민간 출판사들 외에 학부의 편집국도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식 학교가 생겨나면서 당시 가장 많은 출판물, 즉 교과서를 간행하였다.

1905년 이후 이처럼 출판사가 많이 생겨난 것은 이때부터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역사적 사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제는 1904년 노일전쟁에 돌입하면서부터 한국의 언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나섰다. 1904년 7월 20일 군사경찰훈령과 10월 9일에는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한 내훈을 정하여 신문의 사전검열 등의 직접적인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 이처럼 일본이 직접 통제하고 나서자 한국의 항일 언론 활동은 영국인 배텔이 대표로 있던 『대한매일신보』를 제외하고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대신 활기를 띠게 된 것이 바로 출판물을 중심으로 하여 실력을 양성하지는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을사늑약 이후 많은 출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1908년까지 출판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일제는 출판 부문에 대해서도 탄압을 시도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1909년에 제정, 시행된 출판법이다. 이를 계기로 1909년부터는 출판사의 증가 추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후술하겠지만 발행 종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서적 발행 실태

애국계몽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05년 이전에는 많은 종류의 책이 발행되지는 못했다. 최초의 출판사인 광인사에서는 『충효경집(忠孝經集)』(1884), 『농정신편(農政新編)』(1884), 『농정촬요(農政撮要)』(1886), 『일본내각열전(日本內閣列傳)』(1886), 『고환당집(古歡堂集)』(1886) 등을 발행한 것으로 알

<표 2> 연도별 서적 발행 종수

연도	종수	연도	종수
1883	3	1897	6
1884	11	1898	9
1885	7	1899	18
1886	2	1900	16
1887	9	1901	12
1888	3	1902	15
1889	2	1903	5
1890	5	1904	13
1891	1	1905	27
1892	5	1906	34
1893	4	1907	58
1894	6	1908	126
1895	7	1909	73
1896	7	1910	44
소계	72	총계	528

려지고 있다(강명관, 1999, 50쪽; 김봉희, 1999, 36~37쪽). 1905년 이전에 발행된 그 외의 책으로는 대부분 종교 관련 서적이거나 학부가 발행한 교과서류, 그리고 족보류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위의 표는 이 기간의 연도별 발행 종수를 고전목록과 강명관의 연구(1999, 65쪽)를 종합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현재 당시의 책들이나 목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대강의 추세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⁴⁾

4) 고전목록은 과거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목록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서적류의 목록이다. 따라서 불완전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제일 포괄적인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에서 연도별로 검색하여 청이나 일본에서 발행된 것들을 제외하고 신문, 잡지도 제외하였다. 동일 제목의 책이 소장처가 여러 군데인 것은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동일 제목이라도 간행자가 다르면 별개로 간주하였다. 학부에서 발행된 교과서류도 이 자료에는 포함하였다. 1908년과 1909년에 대해서는 이 고전목록에서 이런 방식으

총 528종에 이른다. 1890년대까지는 연간 발행 종수가 대개는 10종 미만이었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소 늘어났으며 1905년을 계기로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8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을 기록하는 폭증세를 보였다. 이는 앞서 신생 출판사의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이 정점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1908년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를 비롯해서 일련의 충격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 의식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근대 민족주의적 인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대한매일신보』의 지면을 통해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1908년이다(채백, 2005a, 57쪽).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애국계몽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출판물의 발행도 활기를 띠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해에 이처럼 많은 출판물들이 발행되면서 한반도의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문자로 된 텍스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Schmid, 2002/2007, pp. 369~370).

그러나 1909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꺾이어 감소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때 이러한 변화의 주된 계기는 바로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일제는 1907년 12월 18일 칙령 제54호로 학부 관제를 개정하여 종전에 학부 편집국이 관장하던 도서 인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는 1908년 8월 28일 학부령 제16호로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용 도서는 사전, 사후 검열을 거치도록 만들었으며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지 않고 도서를 발행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유상호, 1986, 40~41쪽). 다음의 표는 1910년 5월까지 교과별 검정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로 계산한 결과가 강명관(1999)에 제시된 것보다 적게 나와서 강명관의 논문에 실린 숫자를 취했다.

5) 후술하겠지만 ‘민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표 3> 교과용 도서 검정 현황(1910.5까지)

구분	수신	국어	한문	역사	지리	理化	수학	박물	체조	농업	교육	일어	法經	辭書	계	비율 (%)
검정출원	12	16	13	16	20	8	6	14	1	2	1	5	2	-	117	100
인가	3	4	3	6	60	7	4	12	1	1	1	5	2	-	55	47
불인가	5	2	2	3	5	0	1	0	0	0	0	0	0	-	18	15
조서중	4	10	8	7	8	1	1	1	1	1	0	0	0	-	44	38
인가율(%)	25	25	23	38	30	88	67	86	100	50	100	100	100	-		47

출처: 유상호, 1986, 49쪽.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규정에 의해 검정을 실시한 바 1910년 까지 총 117종이 인가 신청되었으나 그중 인가를 받은 것은 55종으로 47%에 불과하였다. 특히 분야별로 보면 일어와 자연과학 분야는 인가율이 높았으나 수신과 국어, 역사, 지리 등의 분야는 평균을 밑도는 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책들이 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제의 검정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당시 출판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 해인 1909년 2월 23일에는 법률 제6호로 출판법을 제정하였다. 이 출판법도 당시 출판물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통제장치가 되었다. 앞서 일제는 언론 통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07년 신문지법을 제정, 공포한 데 이어 애국계몽운동의 흐름 속에서 활성화된 출판 부문에도 통제의 손길을 뻗어 이 출판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출판물들은 내부 경무국이나 지방장관에게 원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출판 후 납본하는 이중의 검열을 받게끔 만들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으며 해당 도서는 발매·반포 금지와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249~251쪽).

이를 계기로 1909년 5월 5일 현재의 『월남망국사』와 『유년필독』 1, 2권 및 『유년필독석의(釋義)』, 『동국사략』, 리상익의 『월남망국사』, 김대회의 『20세기조선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윤치호의 『우순소리』 등 8종의 도서가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다(유상호, 1986, 51~56쪽).

이 시기 출판물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유상호(1986, 19~20쪽)는 1905년 이후의 기간 중 신문에 광고된 서적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이는 신문 광고를 통해 분석한 것이므로 광고하지 않은 것이 배제되어 전체의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권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계몽을 통하여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후일을 도모 하자는 당시 엘리트들의 지배적인 사상에서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의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표 4> 애국계몽운동기 출판의 분야별 현황

주제별	종 수	비 율
총 류	3	1.7
철 학	11	6.4
종 교	0	0
사회과학	42	24.6
순수과학	20	11.7
기술과학	12	7.0
예 술	2	1.2
어 학	23	13.5
문 학	14	8.2
역 사	44	25.7
합 계	171	100.0

3. 근대 민족주의 형성과 개화기 출판

앞에서 인용한 채백의 연구(2005a)는 개화기 한국 신문을 대상으로 근대 민족주의적 인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족주의 형성의 단계적 심화 과정을 출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출판과 신문의 매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문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가는 매체이지만 출판은 이에 비해 무거운 매체로서 대응의 속도는 느리지만 내용의 수명은 긴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신문은 중앙집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을 띠기 쉽지만 출판은 상대적으로 분산적이어서 일관된 경향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출판에서는 단계적 발전보다는 주제 분야별로 다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다양한 서적의 주제 분야 중 근대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계몽서적과 역사, 전기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 분야 출판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근대 민족주의 형성 과정에서는 각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1) 계몽서적

을사늑약 이후의 애국계몽운동이 추구하는바 기본 목표가 국권 회복을 위해 민력개발과 독립역량 양성에 있었던 것인 만큼(신용하, 2004, 132쪽) 당시의 출판운동이 가장 주력했던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계몽서의 발행이었다. 여기서 계몽서란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계몽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전래의 고전 중에서도 당시 사회의 맥락에 새로이 의미 부여를 하여 재출간한 서적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몽적 내용의 책을 출판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지를 계발하여 국력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책들이 간행되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전 목록을 토대로 연도별로 간행된 주요 도서들을 제목과 발행처만을 정리해

<표 5> 애국계몽기 주요 계몽서적 발행 목록

연도	제목(발행처)
1905	「대한강역고」(박문사, 황성), 「대한신지지」(미상), 「대한지지 상, 하」(대동서서), 「목민심서正文」(박문사), 「흠흠신서」(미상), 「민법총론」(미상), 「법학통론」(미상)
1906	「국민수지(國民須知)」(김우식), 「국가학」(미상), 「만국공법요략」(광문사), 「목민심서」(광문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연상상점滙上商店), 「신편 박물학」(보성관)
1907	「생리위생학」(휘문관), 「경제원론」(정회진), 「국제공법지」(미상), 「대한신지지」(한양서관, 휘문관), 「대한지지」(현공립), 「만국지리」(보성관), 「국가학강령」(미상), 「정치원론」(미상), 「한문대한지지」(현공립), 「흠흠신서」(탑인사, 현공립), 「외교통의(通義)」(보성관), 「신편 대한지리」(보성관), 「신찬외국지지」(일신사)
1908	「강자의 이권경쟁」(의진사), 「문답대한신지지」(박문서관), 「초등대한지지」(광학서포), 「최신경제학」(미상), 「간명교육학」(고문관), 「대한신지지」(박문서관, 광학서포, 휘문관, 한양서관, 남장희南章熙), 「법학통론」(미상), 「십구세기구주명명진화론」(교동우문관), 「애국정신」(중앙서관), 「증보문헌비고」(홍문관, 찬집청撰集廳), 천문학(보성관), 「초등대한지지」(한양서관), 「초등위생학교과서」(광학서포), 「최신경제학」(보문사), 「20세기대참극 제국주의」(광학서포), 「국민자유진보론」(고급서해관)
1909	「국가사상학」(옥호서림), 「민족경쟁론」(광학서포, 1909), 「신정중등만국신지지」(광학서관), 「초등만국지리대요」(휘문관), 「국조인물지」(미상), 「만국사물기원역사」(황성), 「사민필지(士民必知)」(미상), 「초등대한지지」(광동서국), 「최신초등대한지지」(옥호서림), 「국민필휴(國民必携)」(광덕서관, 1909), 「소학만국지지」(의진사)
1910	「신정중등만국신지지」(광학서포), 「법학통론」(광한서림), 「신정중등만국지지」(광동서국)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외교·행정 분야를 보면 전래의 전제군주제가 붕괴되어 가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바른 국가사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서고 나아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합리적인 국가 사상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주어 ‘국민’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정치

관련 서적들이 편찬되었다.

국가사상을 다룬 책으로는 『국가학』[김상인(金祥寅) 역술, 김효전(金孝全) 해설, 1906]과 『국가학강령』(1907), 『정치원론』(안국선 편술, 1907), 『국가사상학』[정인호(鄭寅琥) 저, 옥호서림, 1909] 등이 있었다. 국제정세 및 외교를 다룬 책으로는 『강자의 이권경쟁』(유문상, 의진사, 1908)과 『민족경쟁론』(김병만, 광학서포, 1909), 『외교통의(通義)』(안국선 역, 보성관, 1907), 『20세기 대참극 제국주의』(변영만 역, 광학서포, 1908) 등이 간행되었다. 근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책도 여러 종 발행되었다. 예컨대 『국민수지(國民須知)』(김우식, 1906)와 『국민자유진보론』[유호식(劉鑄植), 고금서서관, 1908], 『국민필휴(國民必携)』(광덕서관, 1909) 등이 이에 해당된다(김봉희, 1999, 230~231쪽).

이 책들은 대부분 서구의 근대 민족국가 사상 및 그에 따른 국민들 권리와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수지』를 예로 들면 이는 1906년 4월 김우식이라는 사람이 자비로 출판하여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의 구성 요소를 토지와 인민, 정부로 규정 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와 황실을 구분하는 등 근대 국가 개념의 주요 요소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김동택, 2004, 202~203쪽).

개화기의 사상적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진화론에 관한 서적들도 이 시기에 다량 출판되었다. 사회진화론이 한국 사회에 소개된 것은 개항 직후인 1880년대 유길준 등에 의해서였지만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1905년을 전후한 때부터이다. 이 시기에 유명한 양계초(梁啓超) 서적이 번역 소개되어 널리 읽히면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신용하, 2004, 91쪽). 그의 『무술정변기(戊戌政變記)』는 일제강치 1900년에 현채에 의해 번역, 출판되었으며 뒤이어 그의 사상적 요체가 담겨 있는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광지사국, 1907), 『중국혼』(석실보, 1908)이 간행되었다(고전목록 참조).

일반적으로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 등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체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용하(2004)는 이 사회진화론도

애국계몽운동기에 민족주의가 성립하는 데 상당한 이론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족적 자각이 싹트기 이전의 사회진화론은 위험한 논리였을 수 있지만 애국계몽기 민족적 의식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회진화론의 논리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살길을 모색하는 사상적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밖에 법학에 관한 책이나 각국의 법제도에 관한 책, 그리고 사회진화론을 소개하는 책도 여러 종 출판되었다.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면서 지리학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었다. 지리에 대한 관심이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이후 지리학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즉 근대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새로이 국가 간의 경계 관념이 필요해지고 강조되어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되었던 것이다(Anderson, 1991/2002, pp. 211~221). 당시 한국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과 간도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권보드래, 2006, 70쪽).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전통의 지리서들이 새로이 개정, 출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811년에 정약용이 저술한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장지연이 수정하여 『황성신문』 지면에 1903년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연재한 뒤 『대한강역고』라는 제목으로 엮어 1903년 황성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슈미드(Schmid, 2002/2007, p. 356)는 장지연의 수정 작업을 민족주의적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원본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전통의 고전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수정, 출간하였다는 말이다.

장지연의 저술 외에도 개화기 한국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지리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장지연의 저술보다 앞서 1901년 현채(玄采)가 저술한 『대한지지(大韓地誌)』라는 제목의 책을 광문사에서 펴낸 바 있다. 1907년경에는 여러 종류의 지리 서적들이 발행되었다. 장지연은 1907년 『대한신지지(地誌)』라는 제목의 책을 한양서관에서 발행하였으며 이 원공(李源勳)이 저술한 『대한지지』와 『한문대한지지』가 1907년 당시의 대표적 저술가이고 출판인이었던 현공렴(玄公廉)에 의해 출판되었다. 또한 1907년

에는 보성관에서 김건중의 『신편 대한지리』가 발행되었다(고전목록 참조).

외국 지리 분야에서도 여러 종의 책들이 발행되었다. 이 분야 책들은 우리나라와 청, 일 등에 한정된 세계 인식의 틀을 넓혀 새로운 타자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중요한 정보들이 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지리 관련 서적은 일찌감치 등장하였으니 1891년 간행된 『사민필지(士民必知)』가 시초이다. 험버트가 각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해 한글로 집필하였으며 이를 1895년 백남규(白南奎)와 이명상(李明祥)이 한자로 번역, 출판하였다. 애국계몽운동기에는 발간된 지리 분야 주요 서적으로는 『만국지리』[황윤덕(黃潤德) 역, 보성관, 1907], 『신찬외국지지(新撰外國地誌)』[진희실(陳熙室), 1907, 일신사], 『소학만국지지(小學萬國地誌)』(의진사, 1909) 등이 있다(김봉희, 1999, 214쪽).

외래의 신지식을 받아들여 책으로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래의 고전을 재출간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는 달라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외래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치중했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실정에 잘 맞지 않으므로 우리 고유의 것에 눈을 돌려 그 의미를 새로이 해석하면서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지연 등에 의해 정약용의 여러 저술들이 새로이 출간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한강역고』 외에도 장지연은 현채(玄采), 양재건(梁在鸞)과 함께 광문사를 통해 1902년 정약용의 대표적 저서 『목민심서』와 『흙흙신서』를 간행하였다. 이보다 앞선 1899년 『황성신문』은 8월 3일자와 4일자 논설을 통해 『목민심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서 제목에서 정약용을 ‘대한경제선생’이라 평가한 바 있다. 정약용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의 저술을 재출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책이 출판된 당시 장지연이 사장으로 있던 『황성신문』은 1902년 5월 19일 자에 ‘광문사신간목민심서’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논설을 게재하여 출판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논설을 통해 『황성신문』은 개화세력은 우리의 전통 문물을 낡은 것이라 비판하고 구미의 신법(新法)을 좇아 부강을 이루자하지만 풍속이 서로 달라 구미의 좋은 법도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 양측의 좋은 점들을

취하여 시대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한국 역사에서 정치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육, 유형원, 이익, 정약용, 박지원 등이 있으나 그중 저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정약용이라고 그 출판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주력하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한 역사나 영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근대 민족주의적 관념이 태동하는 중요한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발행된 계몽서들은 타자에 대한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과 근대 국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서구의 문물을 소개하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전통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역사서적

애국계몽기 출판에서 가장 활기를 띤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역사이다. 근대 민족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역사이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새로이 만들어내려면 그 공통의 시간적 기원 및 계보를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법이다. 역사를 통해 국민의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모든 민족은 민족의 계보학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하여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역사 서사를 창출하려 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자기 규정과 그 민족의 국가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것이다(이승원 외, 2003, 160쪽).

특히 민족적 인식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신채호는 당시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역사의 창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발한 역사 저술 활동을 펼쳤다(Andre Schmid, 2002/2007, p. 521). 벨러(Wehler, 2002/2007, p.72)는 19세기 독일이나 이탈리아같이 매우 전통적인 종족공동체들도 외부로부터 민족주의가 침투해 들어오면, 민족주의는 영광스

러운 과거의 국가들을 회상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적 요인의 자극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태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국 역사를 되돌아 보고 필요로 하게 된다는 맥락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근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가 태동하는 과정도 바로 이와 대등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근대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개항 이후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 역사 서술을 탈피하여 우리 역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신채호가 저술한 『을지문덕』에 실린 이기찬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나고 있다(신채호, 1908/1996, 序).

我國은 支那의 문화가 수입된 이후로 人人마다 拜外熱이 極熾하고 卑我癖이 固結하여 을지문덕과 如흔 대영웅은 夢中에도 不思하고 管葛費傘의 輩만 日로 謳歌함에 至하니 我民族의 衰退한 原因이 엇지 此에 不在한가

외국의 것만 숭상하고 우리 것은 비하하는 폐습이 굳어져 을지문덕과 같은 우리 민족의 영웅은 꿈에도 생각지를 않고 날마다 관중과 제갈량, 비스마르크, 나폴레옹 등의 무리⁶⁾만을 찬양하기에 이르니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쇠퇴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역사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애국계몽의 차원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하였던 사실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문을 보면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形)이고 역사는 정신(神)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다(박은식, 1915/1981, 120~121쪽). 역사가 바로 한 국가의 정신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6) 管葛費傘를 이렇게 네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한자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은 신채호의 『을지문덕』을 번역한 이윤석(1983)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신채호 (1908/1996, 22~23쪽)도 역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我が今日에 兇漢을 遇하야 其心으로는 明明白白是盜賊으로 快認하나 暫時免禍의 計로 恥辱을 不願하고 口로 父祖라 强呼하고 勝을 其前に 一跪하면 我的 子는 低頭하야 父祖라 再呼하며 我的 孫은 稽顙하야 父祖라 三呼하고 畢竟幾世後에는 口中에 强一呼하던 父祖가 心中에 眞崇拜하는 父祖가 되야...

당대에는 임시방편으로 행한 일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세대가 거듭되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시대건 인간들이 과거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탐구가 요청되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곤란할 때,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기 어려울 때 과거는 다시 성찰된다. 신채호에게도 미래와 현재를 과거와 더불어 일관되게 이해해야만 했던 절박한 요구가 있었던 셈이다(이승원 외, 2003, 154쪽). 일제의 침략 앞에 국권을 상실해 가는 당시의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국가라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바로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된 민족사학에 의해 한국의 역사는 전통적인 유교적 서술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통적인 유교의 역사 서술은 독립된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그보다 상위 체계인 경학(經學)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군주와 관료들이 현실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거울이자 지식 창고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교육적 도구로서 학자 관료들에게 통치 기술을 교육하는 데 이용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민족사학에 의해서 비로소 한국 민족이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 서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에 와서 최초로 연령과 성·신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을 포함하는 범주인 한국 ‘민족’의 역사로 새롭게 기술된 것이다. 또한 민족사학은 한국

민족의 역사를 시기적으로는 단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간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대하는 역사 서술을 만들어낸 것이다(Em, 2001/2006, pp. 473~477).⁷⁾

그렇다면 외국의 역사는 왜 필요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7월 16일자에 실린 ‘세계의 근리 스귀를 불가불 님을 일’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설은 “민국심을 비양하기에는 본국 스귀를 불가불 님을거시오 문명연원을 연구하기에는 각국의 넷적 스귀를 불가불 님을거시오 혼줄첩경으로 향하여 텃하대세를 알고저하면 오직 이세계의 근리스귀 일편이면 족하다홀지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외국의 최근 세사를 읽지 않는 것은 “어둔 길에 촉불을 브리고 힘힘과 궂고 큰 병에 약을 띄워하고 고향지질되기를 즐겨힘과 갖호니”라고 하면서 그래서야 어찌 생존을 얻고 안락을 누리며 광명을 보겠냐고 설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명의 연원을 알기 위해서는 외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최근의 국제 정세를 알기 위해서는 외국의 최근세사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최근 역사에 대한 서적도 줄을 이어 간행되었던 것이다.

애국계몽기에 발행된 주요 역사 서적의 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팔호 안은 펴낸 곳으로 황성은 황성신문사, 대매는 대한매일신보사를 지칭한다(강명관, 1999, 67쪽; 고전목록 참조).

7) 개화기에 발행된 일부 역사책들 중에는 일본의 역사서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그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들도 있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한 역사서들을 그대로 번역한 책들도 간행되었다. 예컨대 1906년 출판된 현재의 『동국사략』은 일본인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가 쓴 『조선사』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더구나 이 책이 소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택영의 『동국사략』이나 심지어 장지연의 『대한강역고』에서도 가야에 관한 식민주의자들의 주장이 되풀이되었다는 것이다(Em, 2001/2006, pp. 483~484, 603).

<표 6> 애국계몽기 주요 역사서적 발행 목록

연도	제목(발행처)
1905	에급(埃及)근세사(황성), 만국사기(박문사), 법란서신사(法蘭西新史, 흥학사)
1906	미국독립사(현공림), 월남망국사(대동서림, 보성사), 신정중국역사(휘문의숙), 정선만국사(황성, 김상만서포), 대동역사(미상), 동국사략(보성관), 만국사기(미상)
1907	서사(瑞士)건국지(대매, 로익형, 박문서관), 비울빈전사(戰史, 보성관), 라마사(羅馬史, 玄采), 보법전기(普法戰記, 중앙서관), 의태리(意大利)독립사(정희진), 월남망국사(노익형책사, 대동서시, 현공림, 대구 광문사)
1908	19세기구주명진화론(李琛雨家), 월남망국사(박문서관), 보노사국후례두의(普魯士國厚禮斗益)대왕칠년전사(광학서포), 법란서신사(탐인사), 세계식민사(李琛雨家), 초등본국역사(중앙서관, 광학서포), 대한역사(옥호서림), 동국사략(미상), 동양사교과서(유옥겸 兪鉉兼), 영법로토제국가리미아전사(英法露土諸國哥利米亞戰史, 광학서포)
1909	초등본국역사(광덕서관), 초등대동역사(동문사), 신찬초등역사(광덕서관)
1910	서양사교과서(미상)
연도미상	아사집역(俄史輯譯, 서경리徐景羅), 영길리사(英吉理史)

위에 열거한 것만도 총 40종에 이른다. 역사 서적도 연도별로는 1907년과 1908년에 많은 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국의 역사를 다룬 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서구 근대국가의 태동과 발전을 다룬 것과 저발전 지역의 식민지 전략사가 그것이다. 전자가 본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후자는 반면교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강명관, 1999, 67쪽). 특히 월남망국사가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다루어져 모두 6종이 출판되었다. 이는 일본의 침략 앞에 국권을 상실해 가는 당시 정세에서 1864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월남의 역사적 사례에서 교훈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사서들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의 역사를 민족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고대부터 정리, 발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의 역사서들을 통해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3) 전기류 서적

근대 민족주의는 또한 영웅을 필요로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역사가 필요했기에 여러 종류의 역사서들이 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영웅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강토’와 ‘한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한 영웅이 몸을 바쳐 피를 흘린’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발굴되고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승원 외, 2003, 165쪽).

더구나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던 상태에서 개항 이후 근대적 개혁을 위해서는 탈중국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하면서 한국 역사 속의 영웅을 숭배하는 일은 민족 정체성을 높이는 데 최상의 길로 인식되었다 (Schmid, 2002/2007, p. 175). 영웅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민족의 이념적 지향점이자 모델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을지문덕』의 서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신채호, 1908/1996, 11쪽).

余 | 가 高句麗大臣 乙支文德의 歷史를 讀^ㅎ다가 氣旺旺^ㅎ며 膽^解膽^解하야 卽仰天
叫曰然^歟然^歟 我民族의 性質이 乃如是偉大의 人物과 偉大의 功業은 於古에도
無比며 於今에도 無比니 我民族性質의 強勇이 乃如是歟아

을지문덕의 역사를 읽다가 기운이 마구 솟아나고 마음이 벽차올라 하늘을 보며 ‘바로 이것’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민족의 성질이 이처럼 위대한 인물과 위대한 업적은 옛날에도 비할 데가 없었으며 지금에도 비할 데가 없으니 우리 민족 성질의 강함과 용감함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이다. 을지문덕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영웅의 전기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 중에는 현세에서도 위기

를 타개하고 민족국가의 건설을 이끌어 나갈 그같은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갈망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신채호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번역한 『이태리 건국삼걸전』의 서문 말미에서 “若此書의 因緣과 此書의 紹介로 大韓中興三傑傳或三十傑傳三百傑傳을 更作하면 此는 無涯生 無涯의 血願也로다”라고 함으로써 이 책의 번역 의도를 밝히고 있다(신채호, 1907/1997, 4쪽). 이태리의 건국 영웅 3인에 대한 전기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애국자들이 3명에 머물지 않고 30명, 300명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단재는 당시 한국에 영웅의 출현을 바라면서, 그들의 전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그는 과거로 눈을 돌려 한국사의 삼걸로서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의 전기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강영주, 1984, 343쪽).

신채호는 이처럼 영웅에 대한 갈망에서 영웅 전기를 저술하였지만 그가 역사 발전을 영웅 중심의 사관에서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태리 건국삼걸전』의 결론에서 그는 “이태리 건국이 어찌 이 세 사람만의 공이겠는가?”하면서 수천 수백 명의 마치니와 가리발디, 카부르가 있었으며 이 세 사람은 단지 그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신채호, 1907/1997, 93~94쪽). 이러한 역사 인식의 바탕이 있었기에 그는 출판을 통해 민중들을 대상으로 애국계몽 운동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며 이에 따라 여러 저술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애국계몽운동 기간 중 발행된 전기류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쪽의 표와 같다(강명관, 1999, 68쪽; 고전목록 참조).

전기물들도 위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7년과 1908년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 역사 속의 영웅 전기 외에 외국의 영웅 전기들도 여러 종이 출간되었다. 외국인물 다룬 전기류들은 대부분 일본의 서적을 번역한 것들이었다. 그중 가장 즐겨 다루어진 인물로는 피터 대제와 나폴레옹, 비스마르크였다. 피터 대제에 관한 것으로는 광학서포에서 1908년 발행된 것(金演稗 역)이 있었으며 나폴레옹에 대한 것으로는 1908년 박문서관[『나파툼사(拿破崙史)』]과 의진사[유문상 역, 『나파툼전사(拿破崙戰史)』]가 각기 발행하였다. 비스마르크에 관한 것으로는 『비사맥전(比斯麥傳)』(황윤덕 역, 보성관, 1907) 등이

<표 7> 애국계몽기 주요 전기류 서적 발행 목록

연도	제목(발행처)
1905	민용암충민공실기(閔龍巖志愍公實記, 미상)
1907	오위인역사(五偉人歷史, 보성관), 애국부인전(광학서포), 이태리건국삼걸전(광학서포), 라란부인전(대한매일신보, 박문서관), 동국명장전(탑인사, 황성서적조합), 비사맥전(比斯麥傳, 보성관)
1908	강감찬전(현재), 갈소사전(曷蘇士傳, 중앙서관, 박문서관), 미국대통령까뽀일트전(현공립가), 나파룬사(拿破崙史, 박문서관), 나파룬전사(拿破崙戰史, 의진사), 세계삼괴물(광학서포), 을지문덕(광학서포), 이태리건국삼걸전(박문서관), 피득(彼得)대제전(광학서포), 화성돈전(華盛頓傳, 회동서관), 몽견제갈량(夢見諸葛亮, 광학서포), 이충무공실기(實記, 현공립),
연도미상	가리파적전(加里波的傳)

발행되었다.⁸⁾ 이들은 비교적 후진국에 속했거나 혼란기에 처해 있던 나라에서 태어나 부국강병책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여 각기 그 조국을 당대 유럽 최대의 강국으로 끌어올린 강력한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강영주, 1983, 90쪽).

애국계몽운동에서는 소설의 형식도 강조되었다. 위의 전기류 중에는 소설의 형식을 취한 것도 많았다.⁹⁾ 소설의 형식을 강조한 것은 민중 계몽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설은 전래의 이야기를

8) 당시 전기류는 단행본 외에 잡지에 연재 형태로 소개된 것도 꽤 있었다. 피터 대제에 관한 것으로는 대개 ‘피득대제전(彼得大帝傳)’이라는 제목으로 『공수학보』(共修學報) 1908년 5월호에 실린 것(조종관 역)과 역시 1908년 5월 『대한학회월보』에 완시생(玩市生) 역으로 실린 것, 비스마르크에 관한 것으로는 ‘비스마르크청화(淸話)’(『조양보』 1906. 7.)와 ‘비스마—그(比斯麥)전’(박용희, 『태극학보』, 1906.12~1907.5), ‘비사맥전(俾士麥傳)’(완시생, 『낙동친목회학보』, 1907)이 있으며, 나폴레옹에 관한 것은 이밖에 『한성신보』 지면에도 ‘나파룬전’이라는 제목으로 1895년 11월 11일부터 1896년 1월 26일까지 연재되었다.

9) 실제 당시의 전기류들이 역사소설이라는 범주로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송백현(1985)나 김재국(2002), 강영주(1984) 등은 신채호의 『이순신전』이나 『을지문덕』의 역사소설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있다.

담은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소설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통속 소설들에 대해서는 당시 매우 비판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역사소설이나 영웅전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박은식은 『서사건국지』의 서문에서 소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풍속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교화하기가 쉽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서적들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영주, 1984, 341~342쪽). 근대 한국의 개화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양계초도 계몽이라는 목적에 소설이 매우 유용한 형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소설이란 사람이 다른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규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소설을 애독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설관은 단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박장대소를 아끼지 않지만 소설이 민중들을 계몽시킬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민중들의 부패를 바로잡고 도덕과 지식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소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퇴폐적인 구소설을 일소하고 민중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신소설’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재국, 2002, 175~177쪽).

4. 맺음말

지금까지 고찰을 통해 우리는 개화기 출판이 계몽서적 및 역사서, 전기류 등의 발간을 통해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계몽서적을 통해서만 우선 타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계몽서적들은 당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대 국가의 건설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주며 근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구의 근대 문물을 도입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관심도 새로이 일어 고전을 재출간하는 작업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역사 서적들은 민족 공동체에 필요한 공통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재구성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고대의 단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 전통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공간적으로는 만주를 포괄하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전기류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영웅들이 나타나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음을 웅변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인쇄매체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케 함으로써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특히 역사서와 전기류는 1907년과 1908년에 집중적으로 발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형성 과정을 고찰한 채백의 연구(2005a)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문에서도 1908년경부터 ‘민족’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족주의라는 용어로 이를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출판에서도 이때쯤에 역사와 전기류 서적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신문과 대등한 맥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을사늑약과 고종의 강제 퇴위 등의 사건을 통해 일본의 침략 야욕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 사회에 글자 그대로의 근대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개화기의 출판 매체들은 신문과 함께 근대 민족주의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다양한 서적들의 출판을 통해 한국 민족은 임(Em, 2001/2006, p. 490)의 표현대로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진 지리적 공간을 공유한 동료 한국인들을 동시적 존재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단초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출판매체는 이렇듯 민족주의의 내용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

이선 매체로서의 기능을 바탕으로 그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벨러(Wehler, 2002/2007, p. 81)는 민족주의의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확립과 발전, 그리고 민족 공동 언어의 확립을 들고 있다. 문자를 매개로 하는 인쇄매체로서의 출판매체는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개화기 한국 출판도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담은 내용을 널리 확산시키고 민족 공동의 언어를 확산시켜 언어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뒤이어서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독자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일단 좌절되고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는 더욱 복잡한 맥락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서 출판매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이 출판매체가 당시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개화기 한국 사회에서 신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독서공중(reading public)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갔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의 몇몇 연구(예컨대 채백, 2005b; 홍찬기, 1995)들을 통해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출판 매체에도 적용시키는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당시 새로운 소설의 독자층이 형성되는 과정이 곧 국민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최태원, 2001; 천정환, 2003, 79쪽에서 재인용). 이는 곧 근대 민족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출판매체로 확대 적용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개화기의 출판 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의 미숙으로 제한적이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애국계몽운동이라는 흐름 속에서 출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이 시기에 일부 책은 놀라운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지석영이 1909년 펴낸 것으로 알려진 『자전석요(字典釋要)』 같은 책은 12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한다. 당시의 문맹률이나 경제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놀라운 판매 실적이다(Schmid, 2002/2007, 역사

서문). 이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민족운동과 결부된 출판이 일종의 붐을 이루었던 배경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시의 민중들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관련해서는 『황성신문』 1908년 2월 22일자 잡보란에 실린 ‘서적의 효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흥미로운 시사를 던져 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近日平安北道諸郡에서 某氏의 ○著述한 政治小説三百秩이 發售됨으로 由하여 一般人民의 愛國思想이 一致奮發하여 家私를 忘却하고 公益事業에 專力하기로 決心하였다니 大抵書籍의 開發民智함이 如此其迅速한지라 幸我全國人士는 汲汲히 新書籍을 購覽하여 知識을 開發하고 事業을 勉勵하기로 十分切望호노라

정치소설을 읽고 백성들의 애국심이 한껏 고양되어 공적인 일에 앞 다투어 나선다면 서적에 의한 민지 개발이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경탄하고 있다. 이는 한 단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당시 사회가 새롭게 인쇄되고 제본된 형식의 새로운 매체에 노출되면서 그 영향을 수용해 가는 과정을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수용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때 민족주의의 형성과 출판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Ⅰ 참고문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박은식 (1915). 『한국통사』(서언 및 결론). 삼성출판사 편 (1981). 『한국의 근대사상』 소수(所收), 서울: 삼성출판사.

신채호 (1907). 『이태리건국삼걸전』. 경성: 광학서포 단재문화예술제전 추진위원회 편 영인본(1997). 청주: 한누리출판사.

____ (1908). 『乙支文德』. 경성: 광학서포 단재문화예술제전 추진위원회 편 영인본(1996). 청주: 한누리출판사.

- _____ (1908). 『乙支文德』. 이윤석 역(1983). 『을지문덕』. 서울: 정음사.
- 강명관 (1999).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제14집, 42~74쪽.
- 강영주 (1983). 개화기의 역사·전기문학(1):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8집, 83~105쪽.
- _____ (1984). 개화기의 역사·전기문학(2): 신채호와 박은식의 전기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논문집』 제13집, 331~348쪽.
- 강윤호 (1985).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 권보드래 (2006). 동포의 역사적 감각.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서울: 소명출판사, 51~76쪽.
- _____ (2007).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서울: 소명출판사, 47~73쪽.
- 김동택 (2004). 『국민수지(國民須知)』를 통해 본 근대 '국민'.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 소명출판사, 193~222쪽.
- 김두중 (1980). 『한국고인쇄문화사』.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 김봉희 (1999).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김재국 (2002). 애국계몽기의 역사소설에 관한 고찰. 단재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예비평연구』 제10집, 169~193쪽.
- 송백현 (1985).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서울: 삼지원.
- 신용하 (2004).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사회사』. 서울: 나남.
- 유상호 (1986). 『애국계몽기의 출판문화운동』.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원·오선민·정여울 (2003).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서울: 소명출판.
- 조항래 (1993).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_____ (2007). 『국채보상운동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 채 백 (2005a). 근대 민족국가관의 형성과 개화기 한국 신문. 『언론과 사회』 13권 4호, 가을, 39~65쪽.
- _____ (2005b). 『한국언론수용자운동사』. 서울: 한나래.
- 천정환(2003). 『근대의 책읽기』. 서울: 푸른역사.
- 최태원 (2001). 근대소설 독자 형성의 가능성: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독자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 조약과 법령』. 서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2007.9.14)

홍찬기 (1995). 개화기 한국사회의 신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Em, Henry (2006). 근대적·민주적 구성물로서의 ‘민족’: 신채호의 역사 서술. 도면희 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서울: 삼인. (원저출판연도 2001).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정여울 역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서울: 휴머니스트.

Wehler, Hans-Ulrich (2002). *Nationalismus, Geschichte-Formen-Folgen*. 이용일 역(2007). 『허구의 민족주의』. 서울: 푸른역사.

(최초 투고 2007. 11. 28, 최종 원고 제출 2008. 2. 2)

The Publishing and the Emergence of Nationalism in Modern Korea

Baek Cha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publishing in emerging process of nationalism in modern Korea.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 imperialist invasion, the Korean nationalism had begun to emerge. With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from 1905 till 1910, the publishing in Korea had become activated remarkably. With the books of enlightenment the Korean society could try to overcome the traditional China-centered world view and try to build up a new recognition of 'others'. In addition the books of enlightenment provided information on the various aspects of modern nationalism. And the republishing the Korean classical books seemed to have been very conducive to improve national self-esteem of Korea. The books on history contributed to building up new national identity which was an indispensable to the nationalism. The Korean history was reinvented from the nationalistic viewpoint. The biographies of historic heroes presented some historic model of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In conclusion the publishing in modern Kore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merging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ism.

Key words: nationalism, publishing, media history, modernity, modern Korea